

사랑 사랑

제81호 (2001/9/22)



「SARANGBANG」 Group for Human Rights, Korea

(110-522) 서울 종로구 명륜2가 8-29 4층

대표전화: 741-5363, 팩스: 741-5364

통신ID: rights(천리안) 인권사랑(나우누리)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인터넷 웹사이트; <http://www.sarangbang.or.kr>

편집 : 허유지수(꿈꾸는사람들 회원)



테러반대, 전쟁반대, 평화실현 !!

[사람이야기]

베트남으로 돌아간 쟁의 소박한 바람

올 초 겨울이 끝날 무렵, 자그마한 키에 반짝이는 까만 눈이 인상적인 소녀가 우리 사무실에 들어섰다. 베트남에서 온 '쟁'이란 이름의 그녀는 1년 기한을 두고 우리나라에 와서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사회단체 활동을 배우던 중이었다. 쟁은 노동자들의 인권 문제에 관심이 있다고 했다. 그후로 쟁은 가끔 사랑방에 와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인권에 대해 공부도 하고, 노동자들의 집회에도 참여했다. 한번은 베트남 출신 이주노동자 한 명을 만나고 와서 그가 처한 열악한 노동조건에 대해 이야기를 해 주기도 했다.

만남이 거듭되면서, 자연스레 쟁에 대해 아는 것이 조금씩 늘어갔다. 쟁은 호치민 인문 사회과학대학의 동방학부 한국학과에서 공부를 했다. 90년대 들어 베트남에 한국인 투자가 늘면서 몇몇 대학에 한국학과가 생겼던 것이다. 한국어를 할 수 있었던 쟁은 99년 한국군의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문제를 다루는 단체인 '나와우리'의 베트남 답사 때, 또 작년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의 베트남 무료 진료 때 그들의 통역을 도와줬다. 그리고 그 두 번의 경험이 계기가 되어 쟁이 한국에 오게 된 것이었다.

쟁은 베트남 전쟁 이후에 태어났다. 하지만 쟁은 베트남 현대사를 조금도 머뭇거림 없이 내게 들려줄 수 있었다. 1857년 베트남은 프랑스에 점령당했다. 프랑스 점령 기간 동안, 베트남에서 나는 풍부한 식량작물들은 대부분 수탈 당했기 때문에 베트남 인민들은 굶주릴 수밖에 없었다. 심지어 1945년에는 200만 명이 기아로 죽었다고 기록돼있다. 프랑스 제국주의에 저항해, 식민지로부터 벗어나려는 해방군의 투쟁은 강렬했다. 결국 1957년 베이징 푸 전투에서 해방군은 프랑스 군의 기지를 점령했다. 해방군이 승리한 것이다. 프랑스는 베트남의 위도 17°선을 기준으로 북쪽은 해방군이, 남쪽은 친(親)프랑스 세력이 일단 사회를 운영하다 1959년 완전 통일한다는 내용의 협정을 해방군과 체결하고 베트남 땅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이번엔 새로이 미국이 들어왔다. 65년부터 시작된 전쟁은 10년 간 지리하게 계속됐다. 75년에 끝난 베트남전 중 당시 18살이던 쟁의 외삼촌도 전쟁 중 해방군의 일원으로 싸우다 총을 맞아 죽었다고 했다. 베트남인들에게 이 전쟁은 민족해방전쟁이다. 오랜 기간 제국주의에 의해 억압받아온 베트남 인민들이 외세의 큰 도움 없이 스스로 해방을 쟁취했다는 자부심 덕에 그들은 전쟁이 남긴 황폐함과 상처를 극복할 수 있었다.

하지만 수많은 민간인의 학살 문제는 아직 풀리지 않은 과제다. 최근 들어 한국군에 의한 학살 사례도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한국과의 외교, 무역 관계 때문에 베트남인들이 스스로 이 문제를 제기하기란 쉽지 않은 문제다. 하지만 잊어버리지는 않고 있다고 쟁은 말했다. 그렇다면 쟁이 한국에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 "일본 교과서의 역사 왜곡 문제에 신경을 많이 쓰는 만큼, 베트남 문제에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한국정부는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문제를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해야죠."

1년 가까이 한국에 있으면서 또 한가지 쟁에게 가슴아팠던 것은 이곳에 살고 있는 동포들

의 생활상이었다. 짱이 본 동포 노동자들은 적은 임금마저도 체불되기 일쑤고, 대부분 불법 체류자라 생활들이 매우 불안했다. “외국에서 온 노동자들을 인간으로 존중했으면 좋겠어요.” 짱의 바람은 매우 소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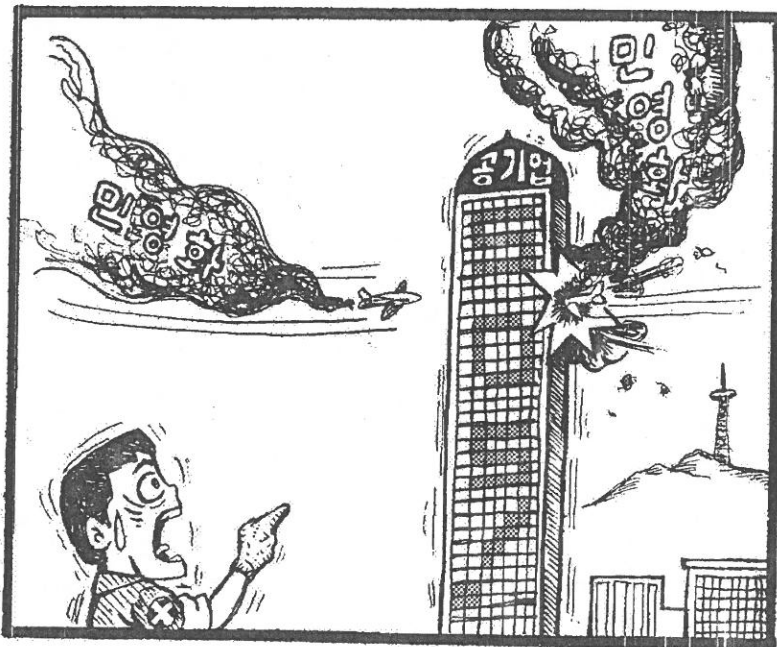
짱은 베트남에 돌아가서 사회단체를 만들 거라고 했다.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문제와 더불어 한국을 비롯해 외국에 나가 일하는 동포 이주노동자들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그가 세운 계획이다.

지난 14일 짱은 고국으로 돌아갔다. 나는 짱에게 약속했다. 나도 언젠가 짱의 나라 베트남에 가겠다고. 내가 짱을 다시 만날 때쯤엔, 우리 사회가 짱과 그의 친구들에게 더 이상 부끄럽지 않은 모습이면 좋겠다. 짱의 소박한 바람대로. [사회권위원회 이주영]

꿈파카툰

이동수

*꿈파란 '꿈꿈히 따지며 살자'의 준말이에요 ^^..



사/업/보/고

(2001년 8월 다섯째 주 - 9월 넷째 주)

인권교육실

● 교칙분석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1차 분석 자료를 놓고 자원활동가 권소정 씨의 질문을 받아 수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9월 초에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신중을 기하기 위해 검토에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2백여 개 중·고등학교의 교칙을 인권의 시각에서 짚어보는 최초의 시도 인만큼 기대하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깨가 무겁습니다. 10월에 나올 결과를 지켜봐 주십시오.

● '교재개발팀'을 '인권교육연구모임'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동안 프로그램 개발에 너무 치중하다보니 이론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반성이 들어 인권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공부와 함께 프로그램 개발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7시(매달 마지막 주는 쉽니다)에 모이고, 인권교육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는 중학교 재량교육 시간에 사용될 목적의 교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권, 평화, 세계화, 타문화 이해, 환경' 5가지 주제로 쓰여지는 이 책에서 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이 인권 분야 대표집필을 맡게 되었습니다. 연말 출간 예정이기 때문에 작업 일정이 좀 바쁩니다.

● 펜실바니아 대학 출판부에서 발간된 '21세기를 위한 인권교육(Human Rights Education for 21st Century)'의 번역작업에 많은 자원활동가가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이 책을 발간해줄 출판사를 찾기 어려

운 형편이고, 인력 부족으로 일부만 번역된 채 방치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봐야 할 책이기에 일단 번역을 마치기로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와주고 계시기에 10월까지는 번역이 끝날 듯 합니다. 이 책이 빛을 볼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길 분을 기다립니다.

인권정보자료실

● 자료입력 프로그램 도입

인권정보자료실 데이터베이스 관리가 한결 수월해 졌습니다. 한글 프로그램 상태에서 자료필드(기호, 제목, 저자, 출처, 언어, 날짜, 주제어, 주요내용)를 입력하여 프로그램으로 변환시키던 기존의 방식에서 이젠 자료실 컴퓨터 프로그램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전환된 셈이죠. 단계 하나가 없어지면서, 인력부족으로 정체현상을 빚던 자료입력은 그 속도가 훨씬 빨라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신착자료부터 자료입력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입력작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자료강신 속도가 빨라져 신선한 자료를 이용자들에게 공급해 주기를 바랍니다.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 작업은 이영태 씨가 수고해 주셨습니다.

자유권위원회

● 집회시위 자유 쟁취를 위한 대응모색 가을 정기국회에서 집시법 개정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사관 앞 집회금지'조항이나 경찰의 자의적 해석, 사

실상의 집회허가제 등 현행 집시법 운용 상에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을 공론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인권운동사랑방을 비롯해, 민주노총, 전농, 민중연대 등 각계 사회단체들

이 집시법 개정과 집회와 시위의 자유 확보를 위한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을 독자적으로 마련하는 것 외에도, 집시법 상의 독소조항에 대한 불복종행동도 기획되고 있습니다.

인권자료 묶음

■ 전자 건강카드 반대 자료 모음 ■

1. 전자 건강보험증 대책 모임

(가칭) 전자 건강카드 대책 모임 (준) 자료 / 전자건강 카드 시행 반대 사회단체 연대 모임 자료 / 전자건강카드 도입 반대를 위한 사회단체 간담회 자료 / 전자건강카드 도입 반대 종교, 인권, 노동,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자료 / 전자건강 보험증 도입, 부당·허위 청구 근절과 관계 없다: 최용준(민중의료연합 정책센터)

2. 전자 건강보험 농성 투쟁

농성 투쟁 속보지 1회부터 7회까지 및 기타(보건복지 민중연대) 자료 모음 (최신후부터) / 기타 다른 시민단체의 반대 글 및 신문기사 모음 / 최근 (2001년 9월) 건강보험증 전자카드화 사업에 대한 콘소시움 내용 및 자료

3. 정부 및 복지부 입장

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특별법 (초안) / “건강보험 재정안정 및 의약분업 정착 종합대책” 복지부 장관 기자회견 자료 (보험정책과) / 국민건강보험 재정안정 및 의약분업 정착 종합대책 (보건복지부)

■ 모성보호법 개정에 관한 경과 및 각 주요 단체들의 입장 ■

1. 여성노동자 관련 노동법 개정 논의 쟁점 및 경과
2. 현행법 / 청원안 / 환경노동위 대안 〈근로기준법〉 조문 대비표
3. 여성노동법 개정 연대회의 입장(공개질의서 포함)
4. 여성노동법 개정 민주노동당 입장
5. 기타 노동, 사회단체 성명서, 공개질의서

자료수집에는 황수용, 이수진, 황주희 씨가 수고해 주셨습니다.

사/랑/방/소/식

(2001년 8월 다섯째 주 - 9월 넷째 주)

■ 서준식 선생님 대표직 사임 이광길 활동가 사임

가을은 이별의 계절인가 봅니다. 사랑방 창립 때부터 대표로 수고해오신 서준식 선생님이 8월 27일자로 대표직을 사임하셨습니다. 사임 배경은 후원회원 여러분께 이메일, 우편,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드린바 있습니다. 대표직을 사임하셨지만 상임활동가로서 계속 헌신하실 것입니다. 또한 인권단체연대회의 일을 해온 이광길 상임활동가가 9월 19일자로 상임활동가를 사임했습니다. 연대사업이란 것이 마음 고생이 많은 일이었기에 이광길 씨의 '쉬고 싶다'는 뜻을 전체 성원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로써 현재 사랑방 성원은 상임활동가 15명, 비상임활동가 1명입니다. 현재 류은숙 사무국장이 대표 권한대행을 맡고 있으며, 사랑방 조직체계의 변화를 모색하는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10월말까지는 새로운 조직의 체계를 갖추 계획입니다. 새로운 모습을 만들고 있는 사랑방 성원들을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 성폭력 자치 내규 작업

운동권 내 성폭력(성희롱) 문제에 대해 사랑방 성원들도 진지하게 생각해 볼 기회를 두 차례 가졌습니다. 이 문제에 관한 사랑방 내규를 만들기로 약속하고 현재 3명의 상임활동가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창간 8주년

9월 7일로 <인권하루소식>이 창간 8주년을 맞았습니다.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교재개발팀 모임으로, 인권단체연대회의 워크샵으로, 연구소 세미나로 사랑방 성원들은 이리

저리 흩어져 일을 계속했고, 하루소식 기자들은 창간 기념주 한잔 못 마시고 밤 새워 하루소식을 만들었습니다. 하루소식다운 8번째 생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 사랑방, '시민인권상' 수상

인권운동사랑방이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주는 올해의 '시민인권상'을 받았습니다. 21일 저녁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류은숙 사무국장은 "인권상이란 것을 거론하는 것도 받는 것도 염치없는 세상에 살고 있기에 인권운동사랑방이 무엇을 해왔는가를 부끄러운 마음으로 되돌아본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인권을 찾기 위한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분들에게 이 상을 헌신의 약속으로 바치겠습니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습니다.

■ 심태섭 하루소식기자 귀국

지난달 24일 남아공 더반에서 열리는 인종차별철폐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했던 심태섭 <인권하루소식> 기자가 9월 8일 건강한 모습으로 귀국했습니다. 낯선 음식과 열악한 통신환경, 소매치기를 당하는 불운에도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는 기쁨을 맛보고 돌아왔습니다.

■ 사랑방 성원들, 케이블방송 출연

대학교 TV(ch 47) 인권포럼에서 제작하는 인권시리즈에 사랑방 성원들이 대거 출연하고 있습니다. 인권교육, 국제인권, 자유권, 사회권, 아동권 등 각 영역에 담당자들이 있기 때문인 듯 합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12시 20분, 일요일 오후 1시 30분(재방송)에 시리즈가 방송되고 있습니다.

"인종차별, 하지도 당하지도 말자구요"

-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에 다녀와서 -

심태섭(인권하루소식기자)

돌아다니기를 싫어하는 태섭이가 방위시절 4주간 훈련소에 입대했던 사건이후, 처음으로 보름이상 집을 떠났다가 돌아왔습니다. 바로 유엔 인종차별철폐대회 때문인데요. 체류기간이 길었던 만큼 많은 것을 느끼고, 또 커다란 가르침을 얻은 시간이었습니다.

대회가 열리는 남아공에 가기 전에 '인종차별'에 대한 공부를 좀 한다고 해서 갔는데, 직접 여러 가지 자신들의 쟁점을 갖고 대회장에 참가한 사람들을 보니 입이 다물어지지 않더군요. 특히, 인도에서 2백여 명에 달하는 참가단을 조직해 참가한 달릿들을 대할 때는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달릿(Dalit)이란, 인도로 '깨어진 인민'(broken people)이라는 뜻인데 카스트 제도에 들지 못하는 '불가촉 집단'이 스스로를 칭하는 말입니다. 이전엔 카스트 제도에 속한 사람들이 달릿을 '하리잔'이라는 말로 부르기도 합니다. 이들 집단은 인도와 그 주변 국가에 약 '2억 6천만 명' 정도가 있는데 카스트제도에 속한 자들은 달릿을 노예같이 부린다고 합니다.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에서 전해들은 그들의 참상은 저 스스로 이야기를 전하기 고통스러울 정도입니다. 달릿은 자신의 상위 계급 사람들에게 절대 순종해야 하는데 만약 이에 저항한다면 강간·살인에 대한 위협도 각오해야 합니다. 물론 이들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처벌받는 예는 극히 드물구요. 자기 상위계급에 속하는 사람과 연애를 했다가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몰매를 맞아 사망한 사체의 사진을 봤을 때, 저는 현실감각마저 잃을 정도였습니다. 알고 보니 유럽에서는 로마(집시)들이 그러한 차별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더군요. '자칭 인권 선진국이라는 나라들도 어쩔 수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회장에서 눈길을 끈 사람들은 더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들이 바로 '푸에르토리코' 사람들이었습니다. 미국 본토에서는 시행하지 않는 미사일 폭격 연습이 남의 나라인 푸에르토리코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리려 아프리카 대륙까지 온 사람들입니다. 비록, 그들의 주장은 대회 선언문에 반영되지 못했지만 저는 느낀 것이 많았습니다. '매항리'가 퍼뜩 생각났기 때문이죠. 제가 조선사람이긴 조선사람인가 봅니다. 우리 정부나 엔지오팀은 그런 미군의 폭격을 과연 인종 차별이라고 인식하고 있을까요? 저조차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으니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얘기가 나온 김에 우리나라 정부 대표단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우리나라 대표단 단장은 여성부 한명숙 장관이었는데요. 한 장관의 연설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한 장관이 발언한 "여성 인권 문제가 인종 차별 문제 해결에 시발점이다", "인종차별적 과거 역사에 대한 올바른 교육이 요청된다"는 내용에 판지걸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런 발언을 한 만큼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우리 대표들이 국제회의에서 활동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우리 대표들은 그런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죠. 물론 우리 대표단이 대회 쟁점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거나 발언할 내용에 대해 자신이 없어서 그런 자세를 보여주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도 빠지고, '힘 좀 있네' 하는 서방국가들이 김을 빼버린 이번 대회에서 우리나라가 적극적인 자세를 가졌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미련이 떠나질 않습니다. 아프리카 국가들이나 아랍권·남아메리카 국가들은 좀 억지스럽다 싶은 발언도 '손 팍팍들면서' 발언하던데, 쯤대 있고 보다 당당한 우리

나라 대표단의 모습을 빠른 시일 안에 보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인종차별이라는 쟁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시고 계실 것입니다. 가장 흔한 예로는 외국인차별(특히, 화교·조선족·이주노동자)과 과거 식민주의 피지배 시절 당시 강제 이주된 동포들에 대한 인종 차별을 많이들 알고 계실 테니까요. 우리는 늘 “한민족, 한민족” 또는 “민족공동체 의식”을 목에 힘줄이 서도록 외치지만, 정작 ‘인간’ 그 자체의 고귀한 가치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살아온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사랑방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고민할 때 반영되어야 할 측면이라 생각됩니다.

대회 자체에 대한 얘기보다 개인적인 감상에 대해 더 많이 적은 이유는 일반적인 얘기는 언론 보도를 통해 들으셨으리라 생각해서입니다. 하고 싶은 얘기는 너무 많지만 정리도 부족하고 해서, 아무튼 건강하게 잘 다녀온 것을 마지막으로 보고 드립니다.

전쟁 반대 메시지를 보냅니다!!



지금 미국정부는 지난 9월 11일 테러에 대응하여 아프간에 대한 보복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테러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존중하지 않는 일일 것입니다. 테러와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세계와 인류를 지키는 길은 미국이 세계 유일 패권정책과 군사적 테러를 포기하고 인류 상생과 공존의 길을 가는 데 있습니다. 우리 또한 보복전쟁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하는 대신, 인권과 평화를 위한 행동이 필요할 것입니다.

진보넷에서는 테러반대, 전쟁반대, 반전평화 메시지 보내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http://antiwar.jinbo.net/mail/form.php>로 접속하셔서 미국과 우리나라 대통령과 관련 장관 및 기관, 의원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테러반대, 전쟁반대, 반전평화!!



시민인권상 수상 소감

광기 어린 테러와 보복이 세계를 먹구름처럼 뒤덮고 있습니다. 가뜰이나 이 사회 언저리로 밀려나 있던 작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그 먹구름을 뚫어쓰고 더욱 작아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우리 '인권운동'은 우리를 애타게 부르는 이 무수한 작은 목소리들에 다가가기에 너무 미력합니다. 아니면 아예 이런 작은 목소리에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요컨대 우리는 지금 인권상이라는 것을 주는 것도 받는 것도 염치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염치없이 이 값진 상을 받으면서 인권운동사랑방의 운동은 정말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로 충분히 내려가는 새로운 차원의 인권운동으로 다시 한번의 도약을 이루어야만 하겠다는 각오를 다져봅니다.

우리가 인권운동사랑방이라는 이름 아래 모인 지가 벌써 8년이 넘었습니다. 그 동안 우리는 항상 틀에 얽매이지 않는 활동가 고유의 모험정신과 젊음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벌여왔습니다. 우리는 8년 동안 쉬지 않고 <인권하루소식>을 발간해왔으며 그것은 올해 연말에 2000호의 고지를 점령하게 될 것입니다. '인권교육'이라는 말조차 이해 받지 못했던 시절에 우리는 맨손으로 이 분야를 개척하기 시작했으며 (소주 수백 개짜를 축내면서) 오늘날 인권교육의 실천을 위한 확고한 노하우를 구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빈약한 재정과 힘겹게 싸우면서 어렵사리 오늘의 인권자료실을 구축해냈으며, 인권영화제는 극심한 탄압과 맞서 물려서지 않음으로써 수많은 인간을 위한 참신한 영상을 시민들에게 제공해왔습니다. 우리는 또한 최초로 인권운동의 영역에 '사회권'을 본격적으로 끌어들었으며, 올해 초에는 진보적 인권운동의 이론을 발전시키기 위한 부설 인권운동연구소를 열었습니다.

이 모든 사업들은 기본적으로 인권운동사랑방을 지탱하는 두 가지 믿음으로부터 힘을 받고 진행되어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인권운동은 비리와 불평등과 패륜으로 가득한 우리 사회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넘어서려는 꿈을 가진 진보운동의 한 분야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운동이 항상 기득권 세력의 '인권'이 아닌 민중의 인권을 향해 있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관점일 것입니다.

둘째로 인권운동의 골간은 어디까지나 용기와 헌신을 본분으로 삼는 활동가이어야 하며 활동가의 상상력과 에너지가 자유롭게 분출되는 인권운동만이 현실을 열어나가는 힘있는 운동일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활동가가 전문지식인의 심부름꾼으로 인식되는 운동은 활기를 잃은 운동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많은 일을 해왔지만 물론 우리가 갈 길은 아직 멀고도 험난합니다. 감옥, 군대, 피차별 소수자, 어린이 등등 새로운 문제가 우리의 도전을 기다리고 있으며 사회권이라는 광대한 분야가 우리 눈앞에 가로놓여 있습니다. 즉 철저히 민중으로 내려가는 새로운 차원의 인권운동은 우리가 걸어온 길에서 겪었던 시련 보다 더 큰 시련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새로운 어려움 또한 위 두 가지 믿음 즉 진보적 인권운동과 활동가 중심주의라는 믿음을 나침반 삼아 극복해나갈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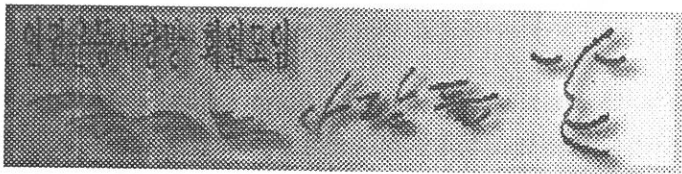
11월이면 인권을 전담하는 국가기구가 탄생합니다. 인권이 억압되고 "인권"이라는 말조차 꺼내기가 두려웠던 우리의 과거를 회상할 때 세월의 무게를 새삼 실감하게 됩니다. 대통령

이 말끝마다 인권을 들먹이는 시대. 기업체 혹은 지자체로부터 막대한 후원을 받는 거대한 인권 이벤트가 개최되고 인권을 표방하는 많은 단체가 생겼습니다. 대학에는 인권을 가르치는 강좌가 개설되고 사람들은 인권을 강아지 이름 부르듯이 편하게 입에 올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인권의 범람이 동시에 인권의 위기임을 감지합니다. 이런 주장은 인권을 짓밟힌 죄수의, 군인의, 중·고등학생의, 동성애자의, 장애인의,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회복하기 위한 집회가 언제나 기십명의 힘없는 외침으로 끝나버리는 현실을 볼 때 더욱 설득력을 갖습니다. 아무리 인권의 이름을 불러도 이젠 탄압 받을 염려가 없어진 이 시대는 인권을 가지고 사교를 하는 사람, 인권을 공부해서 교수가 되려는 사람, 인권을 가지고 눈먼돈 쓸어가겠다는 사람, 심지어 인권을 가지고 출세하겠다는 사람으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받은 이 상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이와 같은 '인권귀족'들과 분명한 선을 긋고 활동해나가고자 합니다. 동시에 인권이 이렇게 범람하는 위기의 시대에 이 시민 인권상의 순수성과 명예를 지켜나가는 치열한 노력은 이곳에 모이신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들의 커다란 책무로 계속 남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활동의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인권을 애타게 부르며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작은 자들에게 오늘의 이 상을 헌신의 약속으로 바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운동사랑방 회원모임 「꿈꾸는 사람들」은...

인권운동사랑방을 지지하는 청년들의 자발적인 모임으로서

스스로 "인권과 삶의 통일"을 통한 인권공동체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꿈꾸는 사람들」은 인권운동사랑방을 지지하는 청년들의 범위를 적극적으로 확장하고

자발적인 활동그룹을 형성하여 인권운동사랑방의 활동을 직간접적으로 도우며

다양한 영역에 진출해 있는 청년들과 인권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며 합니다.

자신의 삶에서 인권을 적극적으로 구현하려는 분들을 적극 환영합니다.

시민인권상 수상 축하의 말씀

김진균 (서울대 교수/ 사회진보연대 및 진보네트워킹센터 대표)

서울지방법원사회에서 제정하여 수여하는 시민인권상을 인권운동사랑방이 받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 빛나는 잔치에 초대되어 축하의 말씀을 드리게 되어 무한히 영광으로 생각하는 동시에 이 사람 자신의 인권 인식과 행동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검토케 되어서 기쁘다는 마음을 고백합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의 활동은 수상자선정 자료집에 나와 있고 이를 보면 사랑방이 1993년에 설립한 이래로 꾸준히 즐기치게 그리고 온갖 탄압을 이겨내면서 활동해 왔음을 보게 되고 또한 감탄하게 됩니다. 동시에 이 사랑방의 활동이 들어내 주는 것을 보면 우리 사회의 인권현실이 이렇게 까지 처참한가에 대하여 수치와 두려움을 금치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의 사상을 돌이켜 보면 그것이 아무리 유교에 연유한다고 하더라도 공동체 생활을 하기 위해서 공동체에 기반으로 하는 기본 가치와 정의를 형성해 온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아주 옛날부터 인(人)과 덕(德)을 강조하였으며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선 상대를 깨닫다 혹은 밝게 알아서 받아드린다는 의미의 서(恕)를 강조해 왔습니다. 이러한 기본 가치가 근대국가에서 보편적인 규준으로서의 제도화를 추진할 수 있었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20세기 그 동안의 시기에 전개되었던 제국주의 지배의 식민주의 그리고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각축장으로서의 분단과 냉전에 우리가 당면하는 모든 잘못이나 모순을 그 탓으로 돌려서는 우리의 적극적 자세가 성찰되리라고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적 주체와 금지에 관한 문제를 더욱 제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옛날에는 인간의 도리가 강조되었을 것인데 인권의 가치는 아마도 보편적 인간의 발견 내지 탄생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도 공화국을 천명하였습니다. 보시다시피 공화국이 민주주의를 확보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 민주주의는 기본권을 포섭해 가는데서 적극적으로 발전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집회 결사의 자유는 선량한 시민이, 표현의 자유는 순수예술하는 사람들이, 학문의 자유는 교수나 연구자가, 종교의 자유는 성직자가, 사상의 자유는 고매한 철학자가 전문적으로 누리는 권리로 인식하거나 그렇게 대우하거나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아마도 정치적 기본권도 지배불러만이 전유하는 것 인양 인식되고 있습니다. 정치적 기본권이 사상이나 종교, 나이나 성별, 그리고 국적에 따라 차별 받을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데올로기적 기준에 의한 판정에 의하여 차별되어서는 안될 기본적 권리입니다. 따라서 정치적 기본권은 사회구성원 모두가 누려야 하는 보편적 권리입니다.

인권 개념은 부르조아정치체제에서 발전되어 온 정치적 기본권 이상의 가치를 포괄하는 것이 역사의 진전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역사와 문화가 달리 해 온 사람들

이 각자 추구해온 가치와 필박받아 온 민중들의 끈질긴 운동에 의한 인간 존엄가치가 이 인권의 가치에 정의로운 것으로 보태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에 대한 차별의 철폐에서 나아가 인간에 대한 깊은 배려, 더 나아가 정상적인 인간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토록 사회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가치관으로 추동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는, 인류는 온갖 차별의 역사적 폐습을 완전히 청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새롭게 변함으로서 인간에 대한 가치인식이 확대되고 심화되어야 할 조건에 대하여 창의적이고 융통성있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태아로부터 산모에 이르기까지, 인간적 배려가 잘 주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성에 대한 남성의 오랜 억압의 기제를 제거하지 못하여 여성의 욕망과 인간다움에 대한 권리를 억누르고 있습니다. 인명이 말살되는 상품으로 팔려 나가고 있습니다. 노동자는 아직 정상적인 인간으로 대접받지 못하고 자본의 필요에 따라 정리해고 되어야 하는 대상으로 내 몰리고 있습니다. 국적이 다르고 신봉하는 하느님이 다르고 인종이 다른 사람들에게 적대하는 행위를 잘 다스려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가보안법이라는 악법을 아직 제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하나의 지구촌으로 발전하면서도 투자 우선의 보호정책 추구하고 전쟁의 상설적 시장화에서 오는 인간과피와 환경과피를 방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가 인간을 아끼는 자세에서 나오는 인권의 확산에서 해소되는 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인권운동은 모든 사회운동의 단위들, 그리고 모든 사회생활의 단위에서 전개되어야 할 기본적인 것입니다. 생계의 근원이 위협받아 더욱 불안정한 삶으로 몰아가는 추세에서는 불안정한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아갈 사회적 장치를 추구하는데 있어서 그 핵심적 가치 인권이 자리잡아야 할 것입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인권운동을 전담하다 시피 해 왔습니다. 서준식 전대표를 위시하여 여기에 몸담고 있는 활동가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하여 이 사회에 인권의 절박한 현실을 고발하고 인간다운 사회로 전환해 가는 그야말로 변혁의 이상을 제시해 왔습니다. 이를 우리는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치하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모든 사회영역에서 인권의 보편화가 하나의 두터운 터전으로 다져지길 기대하고 또한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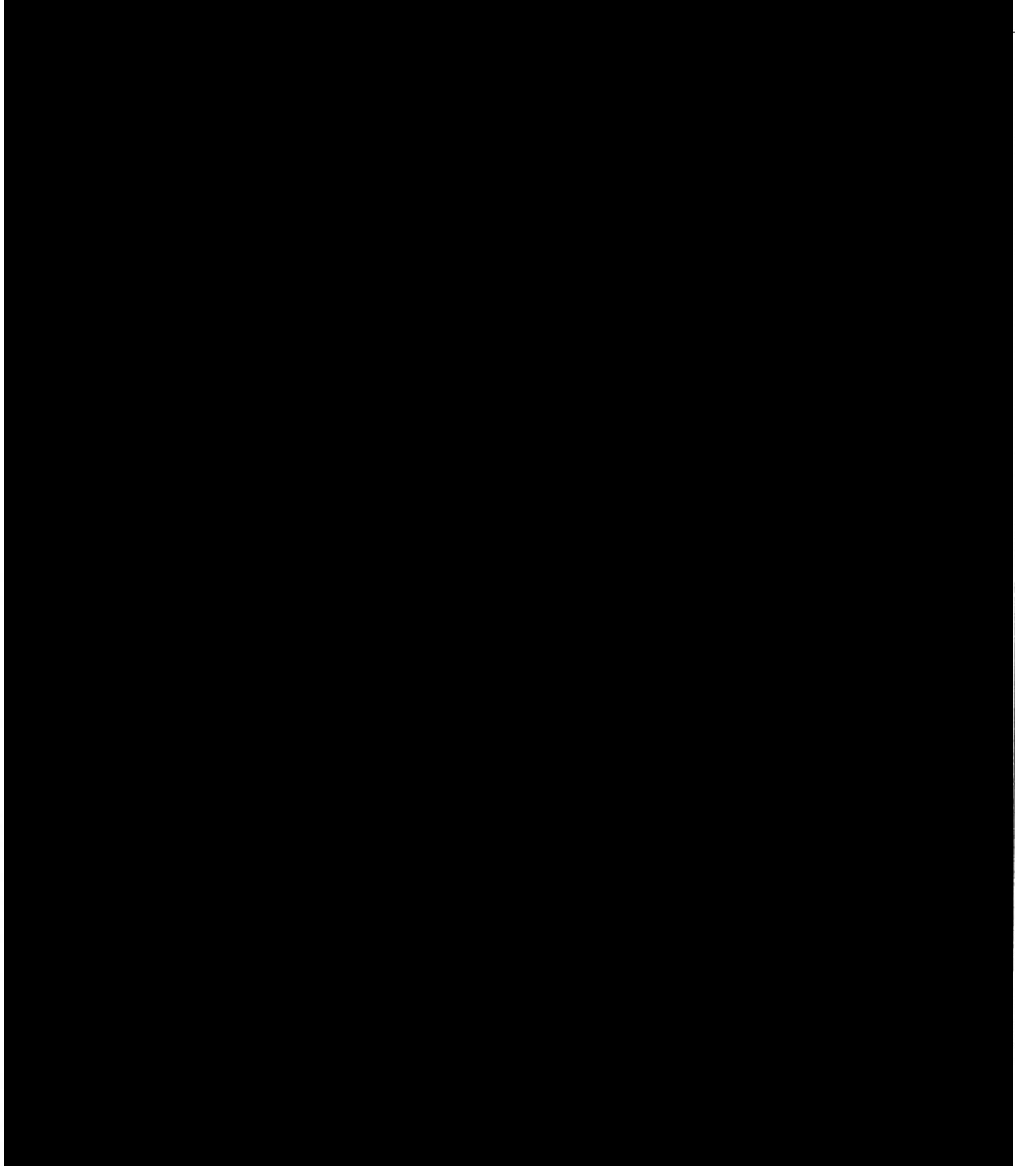
2001년 8월 회계 보고

(2001년 8월 17일 - 9월 16일)

이월금 : 21,114원			
수입		지출	
사업수익	2,426,940원	사업비	1,825,620원
-하루소식	2,037,480원	-하루소식 우편발송	197,140원
구독료(108명)	1,892,880	-자료실	81,750원
기사배급	144,600	-교육실	19,820원
-간행물 판매	186,700원	-감옥인권팀	70,710원
2000국보법보고서	4권	-사회권위원회	28,020원
인권교육길잡이	1권	-연대사업	100,000원
하루소식 합본호	9권	-사람사랑 제작발송	96,400원
인간답게살권리	2권	-합본16호 제작발송	1,225,400원
아이들의인권	1권	-기타사업비	6,380원
불심검문자료집	5권		
-자료복사비	6,300원	활동비	4,550,000원
-강연료	170,000원	사무실유지비	1,111,270원
-방송출연료	26,460원	통신비	960,470원
		사무비품	195,000원
후원금	4,237,190원	사무국 식비	346,990원
-정기후원	4,463,920원	생활비	128,640원
-기타후원	297,400원		
상임활동가 기여금	954,820원		
차입금	600,000원		
기타	389,833원		
-은행이자	9,833원		
-전화가입비 환불액	380,000원		
총수입:	9,132,913원	총지출:	9,117,990원
잔액:			36,037원
부채:			2,100,000원

● 특별사업기금 적립액 : 3,498,670원

<8월 후원금 납부 감사합니다> 거나다 순, 9/16일(지로는 13일) 까지



〈2001년 8월 재정 세부내역〉

[Redacted Name] 이 후원금을 보내주셨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합본16호의 제작비용과 발송비용이 상당액 지출됨에 따라 지출이 수입을 초과해 60만원을 새로 차입했습니다.
- 사회진보연대와 민중의료연합, 진보교육연구소 등의 사무실 개소식과 한국통신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하루주점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한통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해 연말 정리해고를 당한 뒤, 9개월 이상 힘겨운 투쟁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